춘천 성시신문

The Chun Cheon Holy City News

발행인 : 박 상 호

2. 사학법과 기독교연합회 | 4. 급격히 변하고 있는 네팔 | 6. 꿈꾸는 교회 (춘천사랑의교회) | 9. 순종하는 오늘 하루 삶의 행복

성 시 비 전

교회갱신 · 부흥 · 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2006년 2월 1일

(1998년 9월 15일 창간) 제87호

에스겔 골짜기의 새로운 변화와 비전

성시화운동을 하면서 항상 마음에 그려지는 그림이 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의 골짜기 비전. 에스겔이 즉은 뼈들로만 가득했던 그 골짜기를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생기가 넘치는 하나님의 군대가 가득하게 되는 영광을 본 환상이 춘천에 이뤄지길 기대하며 이 운동에 오늘도 발걸음을 띄고 있다.

이 골짜기는 우리시대에 일어나게 될 부흥에 대한 비전의 그림일 것이다.

춘천의 영적 모습은 에스겔의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와 진배 없다고 생각된다. 많은 기독교 기관들이 산재하여 복음화를 위해 일하고 있지만 서로 연합이 안되고 교통도 별반 없는 그래서 서로에게 도움이나 힘을 주지 못하고 있다.

모든 지체와 기관들이 마치 혈관과 신경으로 연결되어 서로를 알고 또 필요들과 서로의 문제점들을 함께 인식하고 체워주며, 사회의 문제와 어려움에 대하여는 복음적 대안으로 해답을 주고,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며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주어진 일들에만 관심을 갖고 자기에게만 총실할 뿐 개인주의 이기주의적 시각을 넘어서 전체를 함께 보고 또 시민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넓은 시야가 닫혀 있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훌륭한 개인적 신앙과 게 교회의 탁월한 휩등에도 불구하고 사회 속에 어둠의 빛으로서의 영향은 미미하고, 마치 흡어진 모레알이나 구슬 서말처럼 개인적인 역량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금으로서의 깊은 맛을 내지 못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영적 도덕적으로 썩어져가고 문제들은 더욱 증가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에 대한 유일하고 탁월한 해결책인 복음을 들고서도 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이다. 실상은 개 교회나 개인들-특히 목회자와 중직들- 중엔 훌륭한 인재들이 보석처럼 넘쳐나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이젠 에스겔 골짜기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바른 방안을 적용할 때라고 본다.

먼저 사회가 변하기보다 우리들이 변해야 한다.

하나됨의 비밀과 함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과 힘줄이 오르고, 부활의 권능을 통해 복음의 군사들로, 다시 살아난 조직으로 답답한 영적 장애물을 이제 깨뜨려야 할 때인 것이다.

이때 우리 기독교연합회가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변화와 같이 이뻐 저뻐들이 서로 자기 자리를 찾아 서로 하나됨과 같은 네트웍 작업을 이루고, 그 기관들에 힘이 실리고 다각적 방향에서 전문화를 이루며 사회의 필요에 응답하겠다는 것은 부흥을 위한 귀한 세 걸음이 될 뿐만 아니라 고통 받는 사회를 치유하는 역사를 이루리라고 본다.

이에 우리 성시화운동은 이런 네트웍 운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을 기대하며 적극적인 기도운동과 함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목회자들의 자발적 기도운동과 장로,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한 흘리클럽 기도운동, 여성 ·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기도운동과 MP와 아버지 어머니학교를 중심으로 한 중보기도, 각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여러 기도운동들이 이제 함께하여 지역의 영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풀 수 있는 생명적 효율성을 가진 기도운동으로 변회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교회를 순회하며 철야기도에 함께하고 성시화와 연합회의 활동을 소개하며 효과적인 네트웍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또 각 영적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성시포럼을 진행하며 비전을 확립하고 또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성시신문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유와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지게 함으로 기독교연합회가 부흥의 주역이 되도록 돕는 일이 2006년 새해 성시화운동의 방향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협력과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에게 주신 이 춘천 안에 거룩한 부흥이 일어날 것을 소망하면서...

[글 편집부]

이달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세상을 보는 그리스도인

· 황우석교수 줄기세포파문

한국의 영적 질병을 드러낸 대표적인 병폐의 하나로써 빨리빨리등 성과중심의 욕심이 만들어낸 가슴 아픈 사건이며, 권력과의 야합을 통한 인기몰이식 부산물의 하나로 기록된 이 시대의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다. 이를 통해 진실과 공의가 앞서는 과학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학문이 올바르게 발전되도록.

· 5월의 지방선거를 위해

새로운 일꾼을 선출해야 하는 선거의 계절이 오고 있다. 춘천은 혁신도시 등 제기된 도시 개발의 문제에 바른 비전과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 지역을 살리고 강원도를 일으킬 복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 기독교연합회의 네트웍 작업을 위해

기독교연합회가 단순한 친교기관이 아닌 지역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선 모든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는 네트웍화를 통해 개교회와 연합의 활성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모든 영역마다 네트웍 작업을 이뤄 성시화가 극대화되도록.

· 춘천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월요일 오전 7시 예광교회에서 춘천을 사랑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모여 기도하는 모임이 시작되었다. 더 많은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춘천을 위한 중보기도에 적극 참여하도록.

· 인도 비하르를 위해

춘천과 영친관계를 맺고 있는 인도에 신학교와 미션스쿨, 가나안 농군학교의 개설을 위해 춘천에서 2월 6일 약 30여명의 건축팀과 지원팀이 출국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도록.



사학법과 기독교연합회

한나라당 사학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집회 연설문



춘천기독교연합회는 몇 가지 원칙을 기초로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 정치적 목적이나 지역 이기적인 사안들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2. 문제의 성토나 비판보다는 화합과 연합을 위하고 정의의 성취를 위할 때만 지역민과 함께합니다.
3. 이권에 대한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하여는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종교라는 커튼 뒤에 숨어 결코 무심하거나 무관심하지 않고 치료하고 눈물을 닦아주며 바른 미래를 위해 함께 손을 잡고 나아는 것이 바른 종교인이요, 또한 기독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사학법 날치기 통과를 결행한 정부의 무리한 결정에 깊은 우려와 함께 이 시대를 사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경악과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런 장외투쟁을 통하여 밝혀지는 법안내용의 여러 숨은 의도를 알고 보게 되면서 역사적 책임의식과 함께 안타까운 현실을 바르게 해결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춘천은 이 사학법 문제 이전에 혁신도시 불공정 선정으로 인해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풀 수 없는 울분과 참담함 속에 지금까지 5번 이상 칼바람이 휘몰아치던 날, 공지천에서 도청까지 정의가 실현될 것을 수만의 시민들이 피를 토하듯 외치고 기도하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치가의 잘못된 지점과 불공정 선정으로 인해 모두가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어린 아이라도 알 수 있는데도 정치적 논리와 책임을 회피하려는 지도자와 정책부처에 의해 혼란을 겪고, 진실조차 무참하게 묵살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듣고 본 현실입니다.

제가 이번 혁신도시 일에 참여하면서 철저히 경험한 것은 아무리 좋은 정치적 방안도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하게 접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협의를 거쳐 억울한 측이 없도록 다수의 소리가 모두 적극적으로 경청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심은 버려야 합니다. 결코 정치적인 목적과 자기유익을 위해 이용하려 하면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특히 사학법 개정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어린 곰나무를 위한 새 기초를 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특히 이 사학이 고등 교육기관의 80%라면 이를 가볍게 생각해선 결코 안됩니다. 한번 잘못 끼워진 단추 같은 악법은 대대로 많은 희생과 엄청난 대가가 지불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곰나무들이 대상이기에 그 파장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를 정치적 논리로만 풀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지역 안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과 제직들이 각기 주어진 달란트를 따라 모든 분야에서 서로 함께 하는 네트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엽적으로 작게 할 수밖에 없던 사역들이 다각화 전문화가 되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등불 역할을 하도록 사학법도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치기 통과가 멉니까? 관선이사를 통한 정치적 개입을 하려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들을 노조로 모두 몰아내고 교사가 아닌 노동자로 전락시켜서야 되겠습니까? 교육은 사라지고 정치적 이념의 야욕을 채우려는 장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특성화 교육은 사멸되고, 꿈과 비전을 뒤로하고 정치적 이전투구의 판이 되도록 한다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이 지금 결정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춘천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선배들의 거룩한 피가 뿌려진 대첩의 역사현장입니다. 6.25 밀고 내려오는 적군의 탱크를 수류탄 하나에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산화하며 깨뜨린 잊을 수 없는 자랑스런 도시입니다. 일개 대대가 3개 사단을 맞아 당당히 승리를 일궈내며 민주주의를 몸으로 지켜낸 거룩한 피로 민족사의 방향을 바꾼 곳입니다.

이데로의 사학법은 안됩니다. 물론 혁신도시도 안됩니다. 바른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신중하게 제언하겠습니다.

1. 욕심을 버리십시오.

욕심은 죄의 근본이고 그것을 잉태하면 죄를 낳고 이것이 장성하면 사망의 원인이 됩니다.

2.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문제의 근원에 있는 모든 사학들에겐 중요한 초심이 있었습니다. 민족과 젊은이들을 위해 헌신하던 상록수의 정신이 있었음을 확신합니다. 정말 존경 받을만한 희생과 눈물이 있어 지금의 한국을 일으켰다고 믿습니다. 이에 대한 아낌없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첫 열쇠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학의 관계자들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건학 초기의 개척자의 정신을 되찾아야 합니다. 상록수의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순수함을 찾아야 합니다. 결코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며 염려하듯 가족이나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학이 운영되는 것은 만에 하나라도 안됩니다. 비워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더욱 발전해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 시대의 요청에 귀 기울여야 살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때를 세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으셔야 합니다.

또한 각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위해 교육을 바로 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을 위해 사학법안을 공론하며 다루고 있다면, 자기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한다면, 이는 절대 안됩니다. 순수해야 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울 도구로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도 시민도 정당도 사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면서 감사하고 존경할 것은 존경하며 바꿀 것은 바꾸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역사 앞에 겸허해야만 문제는 풀리고 바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땅 성시화가 시작되고 민족 사랑의 운동이 일어나며 민주주의를 피로 지켜왔던 북한 강원도 수부도시 춘천에서 그 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 1. 24 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조영춘 목사)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 : 박상호 조영춘 최영조 최상도 정재호 이영규 권기찬 김춘배 김미경

원고 투고 및 광고문의

200-091

춘천시 효자1동 373-90 춘천성시신문 앞

대표전화 : 033)256-1260

FAX : 033)257-1260

011-361-2004

010-7347-9004

010-3118-9355

해비타트

-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 춘천지회 -

Habitat for Humanity Chuncheon

우)200-030 춘천시 요선동 9-1 TEL : 254-0009 FAX : 254-8877 E-mail : chuncheon@habitat.or.kr





소망이 넘치는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나눔의 행복한 삶을 누리는 기회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5년 건축은 후원자, 지원봉사자, 또한 여러모로 힘써 주시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여 주신 여러분들의 사랑과 수고의 열매입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춘천지회는 3년 차를 지나, 금년도에는 4년차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해비다 2동씩 짓게 되어 16세대가 입주하여 살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가꾸어 온 땀의 결실입니다.

200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집이 없는 이웃에게 사랑의 집을 공급하게 됩니다.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새롭게 1.1.3.3 운동을 전개합니다. 1은 해비타트 기본 정신인 기독교 사랑의 정신으로 한번 작정한달에 1회 후원, 1은 한달에 1계좌 3천원 후원, 3은 한번 작정하면 3년 동안 후원(3년 이후 후원자 의사에 따라서 연장 가능), 3은 상천영 후원자를 모집하여 매년 지속적인 해비타트 기독교 사랑의 정신으로 육신의 집과 영혼의 집을 지어가는 운동에 다같이 참여하여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 해비타트 주택, 사랑의 집은 더욱 알차게 계속 지어질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어시는 마음으로 이웃 분들에게 알려 주셔서 동참하시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로 사랑으로 후원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1.1.3.3. 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계좌: 농협(예금주 한국사랑의 집짓기운동 춘천지회) 203 - 01 - 510404 계좌로 자유롭게 1구좌 3천원 이상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영적지도자에게 듣는다.

이번에는 포항성시화운동본부장이신 김광용 목사님(포항제일교회 담임)과의 인터뷰입니다.



조: 목사님, 반갑습니다. 2004년에 포항에서 열렸던 제1회 세계성시화대회는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성시화운동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포항을 방문해 성시화의 열기를 느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포항성시화운동의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항에서 성시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는 3년여밖에 안됩니다. 포항 선린병원장 이건오 장로님께서 부임해 오셨는데요. 어느날 저에게 오셔서 포항에 있는 기관장님들의 모임 주선을 부탁하셨습니다. 이런 계기로 기관장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이 모임에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의회의장, 국회의원 두분, 선린대학장, 한동대 이사장, 방송국 지사장, 기상대 장로님 등 25명 정도가 동참해 주셨습니다. 매주 성경을 공부했어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등을 공부하면서 포항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건오 장로님의 열심에 우리 모두가 따라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관장들이 열심을 내어 모이는 것을 목회자들도 따라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7명의 목사님들을 시작으로 목회자, 기관장, 여성, 청년 흡리클럽이 만들어졌고, 이러한 흡리클럽이 주체가 되어 성시화운동본부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정: 길지 않은 성시화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교회들을 통해서 잘 준비된 영적토양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시화운동을 섬기면서 깨닫으셨던 중요한 영적원리나 교훈이 있으시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시화운동이 효과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구심적 질서와 원심적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시화운동본부의 본부장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영적 질서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성시화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성시화운동은 어느 한 교회나 특정단체가 주도하는 운동이 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전교회를 끌어안는 성시화운동으로 발전되어야만 합니다. 포항성시화운동은 이러한 두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평신도 흡리클럽을 각 직능별 흡리클럽-정치 · 경제 · 문화 · 언론 · 예술 등-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론인 흡리클럽은 현재 약 150여명이 모여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흡리클럽도 결성되었습니다. 목회자들도 목회자 흡리클럽을 구성하여 성시화운동이 효과적으로 전개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 포항에서의 경험은 성시화운동을 추구하려는 다른 지역에서 배워야 할 매우 영적 교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포항성시화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성시화운동은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포항에는 해수욕장이 있는데요. 현재 5개의 흡리클럽이 모여서 해수욕장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질서확립을 위해서 자동차 뒤에 성시화운동본부에서 만든, "나는 교통법규를 지킵니다"라고 쓰여진 스티커 붙이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어요. 이러한 운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고, 열매를 맺어서 올해는 제1회 경북성시화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경북지역의 23개 시,군의 기독교연합회와 협력하여, 목회자 90여명과 2000여명의 성도들이 모여 김삼환 목사님을 주 강사로 모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경북지역의 성시화를 다짐하였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각 지역에 성시화운동본부를 조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성시화운동은 일반시민운동과 연합기도운동이 적절한 균형을 가지고 결합할 때 영향력이 증폭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 춘천에서 시작된 운동이 포항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제 자신에게도 큰 격려와 도전이 됩니다. 일반시민운동과 연합기도운동의 적절한 균형을 강조하시는 목사님의 생각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포항성시화대회이후, 성시화운동의 세계적 확산을 위해서 지역별 성시화운동본부의 국제적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시화운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유의해야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각 지역마다 도시마다 환경과 여건, 그리고 영적토양이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성시화운동은 우선 그 지역과 도시의 토양에 맞게 전개해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지역에서, 도시에서 성공한 모델이 다른 지역, 다른 도시에서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보편적 원리를 기초로 다양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김성: 이점에 있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역마다 고유한 영적특성이 있습니다. 성시화운동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조화롭게 협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포항에서 성시화운동본부는 이미 기독교연합회에서 그 독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포항에서 짧은 시간 내에 성시화운동이 활성화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기독교연합회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을 바탕으로 일반성도들이 흡리클럽을 결성하면서 직능별, 은사별 그룹으로 모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힘을 받는 것입니다.

조: 저는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하고 적절한 성시화운동전략이 무엇인가? 하고 많은 고민을 합니다.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저런 도시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모델도시, 모범도시를 위한 성시화운동 전략의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성시화를 통한 모델도시, 모범도시는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를 수 없습니다. 어떤 특정 교회, 특정 단체의 힘만으로 성시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또한 성시화운동은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고 흡리클럽은 평신도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는데,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델도시, 모범도시는 전 교회, 전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를 모으고 힘을 모아야만 이룰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연합해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유능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놀라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교회연합을 방해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성시화운동에 역행을 하는 것입니다.

김성: 각 지역 성시화운동본부의 임원들과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깊이 논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협의되고 합의된 목표와 전략, 그리고 동지적 형제애를 가지고 성시화운동에 매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감합니다. 포항에서 성시화운동을 말미암아 복음이 가시적 열매를 맺어가고 성도들의 신앙이 질적으로 성숙해가는 것을 보고 타 지역에서 성시화운동을 배우려고 도움을 요청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의 성시화운동을 개척, 지원, 협력을 위해서도 믿음과 신뢰가운데 깊이 협의되고 합의된 성시화 목표와 전략은 매우 필요합니다.

정: 성시화운동을 전개하면서 포항지역에 이루어진 복음의 가시적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시화운동이 일어난 이후 포항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전에는 가뭄이 무척 심했거든요. 그런데 성시화운동을 하면서 가뭄과 홍수가 없어졌습니다. 금년에도 대풍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태풍이 오다가도, 포항시에서 200, 300여리 앞에서 태풍이 약해집니다. 또한 성시화운동을 전개하기 전에 포함의 복음화율은 8-9%정도였습니다. 현재는 2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율이 전국에서 1위였는데 현재는 6위로 떨어졌어요. 카비레가 1년 동안 200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조: 바쁜 시간에도 성심껏 말씀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춘천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 임원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과 함께 앞으로 성시화와 관련해서 꼭 이루시고 싶은 사역이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적 교훈인데요, 에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에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섬기는 마음입니다. 넓은 마음입니다. 한도시가 성시화되는 일은 연합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연합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사님 따로! 장로님 따로! 큰교회 따로! 작은교회 따로! 이렇게 되어서는 성시화할 수 없어요. 앞으로 저는 성시화운동이 더욱 바른 성경의 진리위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독교운동이 되도록 하기 위해 성시대학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선린대학 내에 성시학과를 창설해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전개되는 다양한 성시화운동의 현상들을 조사, 연구하고 성경의 말씀에 기초한 올바른 목표설정, 성시전략, 변화하는 세속문화연구 등을 통해 세시대에 맞는 성시화운동을 주도해 나아갈 생각입니다. 춘천은 성시화의 고장으로, 포항은 세계성시화운동의 발판을 마련한 도시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고유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서로 좋은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 부산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산에서 어떤 특색과 이미지로 성시화운동을 이루어 나가실지 주목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 춘천의 좋은 동역자인 포항과 부산이 성시화의 모델도시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일시: 2005년 11월 15일
장소: 포항제일교회
진행: 조영춘, 김성호
글정리: 정재호 / 사진: 김미경



춘천 성시화운동 선언문

Holy City Movement Chun cheon Declaration(1997)

도시의 성시화운동이 각 도시마다 활성화가 되면서 성시화의 연합체를 꿈꾸게 되고 이를 통해 세계성시화의 비전 등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다.

이때 춘천에서 97년 선언이 되었던 춘천 성시화운동 선언문이 이런 일들을 정의하고 부흥의 기틀을 다지고, 이 시대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운동으로 발전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글을 싣게 된다.

성시화란

춘천을 거룩한 도시도 만든다는 것은 춘천에 속한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한다. 성시화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도시에 충만한 상태로서 이는 그 도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평화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상태를 말한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의 초청을 받으며 춘천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개인적 가정적 교회적 시민적 국가적 삶이 제사장적 삶으로 성화되어서 비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성시화운동은

첫째, 복음전도 운동이다. 복음전도에 있어서 성시화 운동은 중세에 일어났던 무력 강점식의 십자군적 방법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비폭력 적극적 사랑의 섬김과 나눔만으로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교회갱신 운동이다.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행자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재하는 곳이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다. 교회는 세속주의의 거센 유혹 앞에 말씀으로의 회복과 갱신을 통해 온전함을 회복함으로 거룩한 도시를 만들어갈 영혼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한다.

셋째, 성시화 운동은 사회개혁운동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명령과 동시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사회적 문화적 책임을 부여하셨다. 따라서 이 세상의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회적 불합리와 문화의 왜곡에 무관심 할 수 없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주권아래 굴복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일은 한 개인 혹은 몇몇 교회나 단체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집중하여 다양한 은사를 각 삶의 터전에서 총체적, 입체적 그리고 역동적으로 연합하여 주님의 복음을 나타낼 때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성시화 운동은 그리스도인들 각 개인과 단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와 사역을 존중히 여기며 이 다양한 힘을 모으자는 운동이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이되 공동체적인 연합과 하나됨이 이 일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이다.

거룩한 도시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거룩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4가지 구체적인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1. 기도를 모으는 일이다.

우리는 기도로 이 사역을 이루어 가야 한다.

2. 춘천 성시화를 위한 연구사역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야 한다.

가정 · 법률 · 교육 · 예술과 문화 · 언론 · 지방정치 · 경제 · 도시계획 · 환경 및 선교 등의 분야에서 영감있는 연구들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3. 훈련을 통한 성시화이다.

훈련 없는 군사들이 전투에 효과적으로 임할 수는 없듯 영적 전투에 나서는 주님의 일꾼들은 말씀에 합당한 삶을 위한 적절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한 규모있는 섬김과 사랑으로 희생을 기꺼이 치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4. 연합의 필요성이다.

분리주의적 종파주의적인 것을 배격하고, 예수님의 보여주신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는 것은 세상사람들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인정할 수 있게 하며 모든 자원들이 분산되지 않고 한곳에 집중할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될 때 춘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고, 이 모델과 모여진 힘이 이 민족과 세계복음화의 모델과 원동력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춘천성시화를 위한 씨앗

춘천성시화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1996년 9월 19일 춘천 성시화운동본부를 창립한 춘천지역의 교회목회자와 지도자, 기독교 기관장, 기독단체장,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지금까지 성시화를 위해 이름도 빛도 없이 기도와 헌신의 씨앗을 뿌려오신 많은 분들의 힘과 정신을 이어받아 그 열매로써 이 춘천성시화 선언문을 널리 공포하여 춘천을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헌신하게 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1. 하나님과 도시

인류와 인류문화의 결정체인 모든 도시는 하나님의 도시이며 그 도시의 모든 소산과 영광은 오직 유일하신 소유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고사하고 인간의 자의적 부패성과 타락,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무관심 속에 극도로 오염되고 왜곡되어 왔다. 죄악된 도시는 그 문명의 화려함에 관계 없이 모두 하나님의 불붓는 진노아래 있으며 그 진노는 결국 예상치 않은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할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가 아직 낮일 때 모든 도시를 하나님께 드리는 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단한다.

2. 성시화 운동과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의 노력이 없이는 어떠한 도시도 참된 의미에서 복음의 도시가 될수 없음을 천명한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이를 도시선교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모든 인류는 종교와 인종 관념의 차이를 넘어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며 구원은 진실한 마음과 참된 회개를 통해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영접할 때 믿음으로 가능함을 확실히 알고 이런 영혼 구원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지도록 힘써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성시화운동은 영적전투의 기도와 함께 교회를 갱신하고 나아가 민족과 세계복음화의 모델을 제시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글 편집부)

통일나눔터를 소개합니다.

21세기 통일한국운동을 추구하며,
북한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주역은,
바로 기도하는 당신입니다!

통일나눔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듯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 복음을 기꺼이 나누려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정기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통일 및 북한사회이해를 위해 관련서적을 읽고 토론 하며, 통일한국과 북한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임장소: 거성침례교회(011-366-8903, 017-379-0191)

성시아카데미 1기생을 모집합니다.

성시화명을 통한 하나님나라와 민족복음화의 비전을 꿈꾸며 사회 각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영적 영향력을 발휘해 나갈 평역자들을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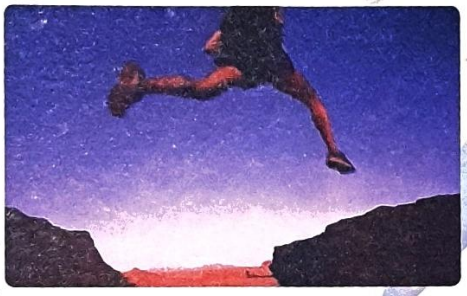
1. 모집인원: 45명 내외
2. 지원자격: 성시운동에 동참하여 각 영역에서 하나님나라를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람
3. 제출서류: 성시아카데미의 소정 양식의 지원서(www.holycity.or.kr 다운로드)
4. 회 비: 5만원
5. 학사일정: 2006년 3월 6일 ~ 5월 22일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12주 과정의 신앙강좌와 그룹토의
   (하나님나라와 세계관, 평신도신학과 청지기론, 성시화운동의 역사와 성시운동전략론, 한국역사와 기독교, 교회연합과 중보기도, 통일한국의 비전, 리더쉽이론, 춘천시와 복음주의적 시민운동의 현황 등)
6. 장 소: 나눔성결교회 예정
7. 주 최: 성시화운동본부 ☎256-1200 / 010-7347-9004

성시혁명을 이끌 차세대를 일으켜라!

-성시아카데미를 개설하며...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일

일본의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은 막부중심의 봉건국가를 붕괴시키고 천황중심의 통일국가를 형성시켜, 아시아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서구 열강과 겨룰 수 있는 나라를 이루게 하였다. 이 메이지유신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사람이 요시다 쇼인이다. 일본 죠슈번의 무사였던 요시다 쇼인은 남달리 학문에 뛰어난 자질을 보여 10살 때 벌써 스승들의 학문을 능가해 군사 전략과 문학을 강의할 정도였다. 한때 국법을 어긴 죄로 14개월 동안 감옥생활을 하면서 무려 618권이나 되는 책을 섭렵하고, 일본이 서양인들의 침입에 적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혁명적인 개혁안을 만들게 된다. 출옥한 그는 슈카숙이라는 사립학교를 세우고 모여든 젊은 하급무사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수했다. 이들 중에는 다카스키 신사쿠, 이토 히로부미, 이노우에 가오루 등 막부말기에서 메이지 시대에 걸쳐 활약하게 되는 일본의 인재들이 끼여 있었다. 훗날 일본의 차세대 리더 양성학교라고 볼 수 있는 이곳은 그야말로 스승인 요시다 쇼인 자신부터 학생들과 함께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배우고 토론하며 실천하는 곳이었다. 앞으로 나라가 나가야 될 원대한 방향을 잡아 놓고, 그 비전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를 자신들이 커리큘럼을 만들어 가면서 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쇼인은 단순히 지식을 맹목적으로 주입하는 선생이라기보다 공부의 목적과 의미를 제시해 주고 학생들과 함께 책과 씨름했던 배움의 촉진체와 같은 스승이라고 할 수 있다. 1868년 1월, 막부를 무너뜨리고 들어선 메이지 유신 정부가 '부국강병'이란 기치를 들고 단행한 개혁은 한마디로 요시다 쇼인이 그렸던 개혁안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었다. 이후로도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 중에 상당수가 교육계에 투신해 차세대 리더쉽을 양성하는데 전력하게 된다.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은 사람을 기르는 일에 좋은 본을 보여준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의 땅, 가나안에 살면서 아브라함은 318명의 사람을 기르고 준비하였다. 이들은 당시 잘 훈련된 연합군을 격파할 정도로 실력이 탁월했던 사람들이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감당해야만 했던 일은 시대를 이끌어나갈 선지자들을 준비시키는 일이었다. 사무엘은 공식으로 은퇴한 후, 고향 라마나욧에 살면서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탁월한 영성을 가진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사역을 감당했다. 다윗은 사무엘이 기르고 준비한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 이스라엘을 가장 강성한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로 재건하였다. 구약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시절이 나온다. 바알을 섬기며 우상의 전도자가 되었던 아합왕이 다스렸던 시기이다. 그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라고 하는 탁월한 영성의 사람을 준비시키셨다. 그를 통하여 여호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능력으로 증명해 보이셨다. 이러한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한 가지 사명이 있었다. 그것은 자신이 감당해야만 했던 영적 사명을 다음세대에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하나님의 종을 준비시켜 세우는 일이다. 엘리야는 다음세대의 차세대 후계자로 엘리사를 부르고, 훈련시켰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전수하였다.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계시니이까"라며 이스라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부르짖던 엘리사에게는 시대를 헤쳐나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다.



네게서 날 자들이... 수보하는 자라!!

다음세대를 위해 사람을 기르는 일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행하신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일이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사시면서 가르치셨고, 훈련시키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시므로 다음세대를 위해 사람들을 기르는 일을 자신을 대신해서 수행할 것을 명령하셨다. 예수님께서 뽑으시고 사용하셨던 제자들은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다. 어느 곳에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받았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된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종들이 이루어나갈 세상을 미리 바라보며 선포했다.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여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사58:12) 하나님께서는 고희를 통하여 역사를 다시 쌓고 허물고 황폐해진 사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사람들을 찾으시며 친히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성시아카데미를 개설하며

춘천은 성시화운동이 최초로 일어난 성시화의 고장이다. 1972년 이래 성시화운동이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신실한 종들을 사용해 오셨다.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성시화운동은 국내, 해외로 급속히 확산되어가고 있다. 성시화운동의 급속한 확산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현재, 춘천성시화운동은 새로운 전환기적 시점에 직면해 있다. 30여년 동안 성시화운동을 이끌어 오셨던 성시 1세대 신앙의 선배들이 지녔던 탁월한 영성을 이어받아 성시화운동의 정신을 다음세대에 전수하며, 급변하는 새로운 시대와 문화적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효과적으로 성시화운동을 추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성시화운동은 시민, 즉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말씀의 원리가 다스려지는 거룩한 도시, 평화의 도시, 녹색 생명의 도시로 만들어가는 복음주의적 시민운동으로 발전되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성시아카데미는 이러한 취지와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하고자 개설되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독교인과 일반시민들에게 기독교적인 교양을 학습시켜, 하나님나라의 원리를 모든 사람들이 각 영역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자 한다. 병든 육신과 정신은 치유를 받아야 하듯, 병든 세상, 병든 사회도 치유 받고 회복되어야만 한다. 성시아카데미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임재하시는 거룩한 세상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

이제 일어나자! 함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

[편집부 정재호]

"어린이 마음마다 하나님 사랑 가득"
C.C.C. 어린이집 원아모집
♣ 4·5·6·7세 연령별 선착순 모집
♣ 저소득층 자녀, 목회자 자녀, 형제 감면 혜택
♣ 정규반(오후2시30분까지), 종일반(오후6시까지)
♣ 특기교육: 영어(매일교육)·피아노·미술·체육·음악·수학·과학특별교육·놀이학습지도
♣ EQ발달을 위한 다양한 학습활동·프로젝트 수업
♣ 자연학습장 운영, 실내외 놀이터, 넓고 쾌적한 강당
♣ 어린이 눈높이의 신앙교육(주1회 어린이예배)
※ 신앙과 양심의 표준인 성경말씀의 교훈을 따라 기도의어머니처럼 전문적인 전인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문의: 033)255-5776, 010-9533-5776
◆ 위치: 춘천시 후평2동 C.C.C. 아카데미하우스 내(한신아파트 옆)

수준높은 시설과 환경 그리고 차별화된 교육을 자랑하는
괄인이화유치원
☎ 033)255-0164
원아모집

후문에서 본 모습
1. 흉내 낼 수 없는 최고의 교육적 환경-유치원 자체가 친환경적(정원, 연못, 잔디운동장, 놀이터, 수영장, 닭장)
2. 고급스러운 실내 분위기(자동문/대형에어컨/내부시설 등)
3. 차별화된 교육 프로젝트(영어/한문/주산/웅변/아동미술/발레/기베/장구와 리코더/피아노/바이올린)
[이화유치원]은 정말 춘천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갖춘 아름다운 유치원입니다. 교육은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부모님을 만족시켜 드릴 것입니다.
※위치 : 춘천시 퇴계동 916-2(남부초등학교 앞)

의미있는 교회탐방순서로 춘천사랑의교회(윤대영 목사)편입니다



꿈꾸는 교회

춘천사랑의교회(퇴계동)는 몇 가지 중요한 비전이 있다. 그 첫째는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이다. 하나님과 사람의 꿈이 만나고 이루어지는 교회. 둘째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셋째는 사람을 세우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를 삼는 교회. 넷째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이다. 최근 윤대영 목사의 부임 이래 크게 성장하고 있는 사랑의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자.

사랑의교회에 들어서노라면

메번 느끼는 것이지만 사랑의교회에 들어서노라면 무엇인가 사람을 포근하게 감싸는 기운이 느껴진다. 은은한 허브 향과 빵 익는 냄새. 그리고 정겨움. 교회일까 카페일까, 카페일까 책방일까? 장르를 파악하기에 쉽지 않다. 기자단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윤대영 목사. 오늘도 새벽같이 충청도를 다녀왔다는 윤 목사는 열정맨(Man), 그 자체이다. 그의 지치지 않는 열정은 다른 사역자들이 쉽게 흉내내기 어렵다.







그러나 그의 지난 시절을 들여보면 윤 목사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건강문제였음을 알게 된다. 장로와 권사인 부모로부터 자라난 윤 목사는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좋지 않음을 느낀다. 병원의 진단 결과는 '부정맥'. 윤 목사는 이 병으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한다. 책을 좋아하고 학구열이 높아 집안의 큰 기대를 샀던 윤 목사가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던 고3시절, 부정맥으로 쓰러지고 만다. 국립의료원에 실려간 윤 목사는 자가호흡이 안될 정도로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다.

윤 목사는 침상에 누워 삶과 죽음의 문제를 깊이 고민한다. 윤 목사는 죽음이 두렵지는 않았다. 구원의 확신도 있었고, 천국의 소망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지상에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라고 묻으신다면 별로 할 말이 없다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한다. 그래서 그때 윤 목사는 침상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다면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점에 눈을 뜨자 윤 목사는 자신의 생명이 연장되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느꼈다고 한다.

구령(救靈)운동

누군가 윤대영 목사를 가리켜 '결심하면 꼭 이루는 목사'라고 귀띔한다. 아마도 윤 목사의 열정과 추진력을 일컫는 말 일게다. 추진력하면 독단적인 리더십을 떠올리기 쉽지만 윤 목사는 더할 나위 없이 겸손하고 부드러운 목회자다. 그의 겸손함은 말투와 인격에서 우러난다. 윤대영 목사가 사랑의교회로 부임한 것은 2004년 봄. 그가 온 뒤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교회의 비전, 예배, 분위기 등등.

윤 목사의 열정사역의 꽃은 구령(救靈)운동이다. 하나님 사랑과 구원의 감격은 반드시 영혼구원의 열정으로 열매 맺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지난 가을에는 「새생명전도축제」가 있었다. 성도들이 봄부터 스스로 장한 2000여 명의 대신자(待信者)로 놓고 작정기도하기를 수개월. 11월 초에 열린 이 전도집회를 통해 500여명이 결신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이동신자가 아닌 순수한 불신자였다고 하는 데에 성도들은 자부심을 갖는다. 올해에는 전도축제가 봄과 가을로두 번 계획되어 있다. 전도는 무시(無時)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전도축제를 통해 불신자를 깊이 주목할 수 있다고 윤 목사는 힘주어 말한다.

특히 올해는 집중적으로 젊은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윤 목사는 매일 아침 강원대와 교육대 캠퍼스를 돌며 젊은이들을 만나고, 그들의 동향을 파악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애쓰고 있다. 미래의 꿈은 이들 젊은이들에게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친절베플기 운동

사랑의교회의 자랑은 많다. 그 중의 하나가 「친절베플기은동GF」이다. 친절베플기은동은 지난 여름, 모두가 기억하다시피 유난히도 무더웠던 더위가 시발이 되었다. 이 더운 날씨 누군가가 시원한 음료수를 갖다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던 윤 목사. 순간 '예수님처럼 네가 베풀어라'는 마음이 들었고, 오래 전부터 소망해오던 「친절베풀기운동」의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한 여름의 열기가 최고조에 오르는 오후 2시, 윤 목사는 동역자들과 님촌천역을 찾아 아무런 조건 없이 승객들과 냉커피를 나누었다. 흔히 목적 있는(?) 친절과는 달리 아무 조건 없이, 교회에 대한 홍보나 접근없이 이루어졌다. 세상 사람들과의 자연스런 접촉점이 생김은 물론 복음이 저변으로 스며드는 찌릿함을 느꼈다고 한다. 지금은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취지를 공감하여 은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매일 남촌천역과 산책로, 교회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섬기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사회봉사를 통해 성도들의 의식이 더욱 성숙해지고 있다고 윤 목사는 말한다. 윤 목사의 지론은 '교회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주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지, 교회 자체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랑의교회의 선교관

사랑의교회의 선교관은 '지금 그리고 여기(Here and Now)로부터 땅 끝까지'이다. 해외선교의 중요성과 함께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적 에루살렘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영적 에루살렘인 이 지역이 먼저 복음화 되어야 세계선교에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사랑의교회의 구역에배도 선교중심으로 재편중이다. 구역은 전통적 구역형식에서 살아있는 선교 소그룹 가정교회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중이다. 구역의 이름부터가 신선하다. '행복 찾기 구역' '하나님을 움직이는 구역' '행복이 익어 가는 구역' '예수사랑 실천 구역' 등이다. 신출된 구역장을 중심으로 구역장이 스스로 구역원들을 모집하여야 하고, 침저한 선교마인드로 영혼구원을 위한 구역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이다.

꿈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사랑의교회는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꿈꾼다. 하나님의 꿈이 지상의 충성된 일군들을 만나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사랑의교회를 만나 행복한 가정의 꿈, 개인적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꿈꾼다. 윤 목사는 자신의 소박한 꿈도 사랑의교회를 통해 성취되었다고 고백한다. 빵 굽는 교회, 그윽한 다향(茶香)이 있는 교회, 책 읽는 교회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기에 성도들에게도 요셉처럼 늘 꿈꾸며, 그 꿈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자신 있게 외치는 윤 목사.

평생을 주님 안에서 꿈꾸며 살겠다는 윤대영 목사와 벡지희 사모(39세), 그리고 그의 동역자 김은심, 김기숙 전도사, 이병욱 장로, 헌신된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기에 사랑의교회는 진정 행복한 교회라 할 수 있겠다.

[취재 최상도, 사진 김미경]

춘천에서 전국으로, 세계로...
예수향기를!!
교회현수막 전문
www.chunill.com
1001design@hanmail.net
"천일디자인"만 쳐도 됩니다.
천일기획(디자인)
T.255-5722 F.256-5722

중앙정보기획
DTP 디티피아
- 업 체 : 명함, 스티커, 지도, 리스트, 카다로그, 각종봉투, 서식, 기타
- 판 촉 : 행사용 현수막, 종이컵, 볼펜, 각종판촉물, 행사용품(티셔츠, 모자)
- 현수막 : 칼라현수막, 실사현수막
"우리만이 내일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합니다"
최 상 철 집사 (제일장로교회)
Tel :033.263.5152
Fax :033.242.5121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607-2
E-mail: chsch1784@yahoo.co.kr

소개합니다

예수전도단 (Youth With A Mission)



1961년 오대원(David E. Rose) 선교사 부부가 미국 선교사로서 한국으로 파송되어 한국예수전도단이 시작되었고, 1960년 로렌 커닝햄에 의해 YWAM이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이 두 선교단체의 비전이 같아 국제적은 초교파 기독선교단체로 활동하게 되었고, 오늘날 YWAM은 세계135개국, 800여개의 지부에서 12,000명의 사역자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해 가고 있다.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예수전도단 춘천지부(대표간사 김준환)는 현재 11명의 전임간사와 예베팀 7명, BEDTS발렌티어가 섬기고 있다.

VISION…

"불같은 선교적 열정을 일으키고 불같이 선교에 동참케 하라"

계7:9-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다. 각 나라와 족속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열망이다.

춘천지부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길 기대한다. 춘천의 모든 교회, 장년, 주부, 직장인, 청년과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선교적 부르심에 의탁하도록 도전하고, 이들을 훈련하여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다.



Ministry 춘천지부사역

♣대학사역(Campus Ministry)

강원대, 한림대, 원주지역 대학교에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일대일 양육으로 강력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캠퍼스 모임, UDTS, 해외 · 국내전도여행, 매해 여름방학에 진행되는 Mission Conference, 리더십훈련 등이 있다.

♣청소년 사역(Youth Ministry)

성경적 기반을 가진 헌신된 청소년들을 일으키는 것이 비전이다. 진행되고 있는 사역으로는 king's kids(왕의 자녀들) 사역, Youth Camp, YDTC, 청소년 부흥집회 등이다.

♣BEDTS(직장인 제자훈련학교)

직장인,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프로그램으로 국내의 유수한 강사진들로 구성된 6개월 코스의 훈련이다. 일주일중 목, 금 저녁에만 강의가 진행되며 개인 휴가기간을 이용해서 해외전도여행을 나간다. 이 학교를 통해서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을 기대해본다.

♣브리스길라 모임

기도 없는 사역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도 없는 부흥은 존재하지 않는다. 브리스길라 모임은 기도로써 예수전도단과 지역사회를 중보 하는 모임이다. 매주 월요일 2시~5시까지 예배와 교제, 강의, 중보기도, 성경공부 등으로 진행된다.

♣화요모임

매주 화요일 저녁 6:30~9:00까지 영감 있는 예배와 깊이 있는 말씀으로 진행되는 예배모임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Staff & volunteer

춘천지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간사와 발렌티어로 동참하여 실제적인 사역을 경험하면서 선교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게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한다.

[글.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 후평3동 831-11 202호 ☎033) 252-1128 www.ccywam.org]

영혼의 양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 살전 5: 16~18



로뎀교회 박 수 권 목사

2005년 5월 31일에 생활고를 못 이겨 일어난 사건입니다.

31일 밤 서울 암사동 토끼굴 근처 한강둔치, 이모(46)씨 일가족 4명이 흐르는 강물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이씨가 먼저 강물로 걸어 들어갔다.

11살짜리 딸과 아들을 끌어안은 부인이 뒤를 따랐다. 새벽 3시쯤 한강관리사업소 청원경찰 차모(52)씨가 이들을 발견. 한강순찰대원이 출동했지만 이씨와 아들은 숨졌다. 이씨는 최근 들어 부인이게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 2000년 소규모 장난감 제조업을 시작했지만 2003년부터 사업이 급격히 기울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었다. 자신은 굶을지언정 어려운 친구에게는 밥을 사줄 정도로 선했던 이씨는 올 초 결혼을 앞둔 직원에게 월급을 주지 못한 자책감에 특히 괴로워했다. 며칠 전 두 아이가 심한 복통과 함께 구토를 했으나 건강보험료가 60만원이나 연체돼 병원에 가지 못하자 이씨의 좌절은 극에 달했다. 이씨는 이날 낮 12시쯤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던 한강 둔치를 찾아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다잡으려 했지만 도산 위기에 송사까지 걸린 삶의 무게를 끝내 이기지 못했다. 장례식장에 덩그러니 앉았던 부인은 "체권자도 직원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 저희 잘못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건 남편, 아이와 같이 가지 못한 것입니다."며 눈물을 쏟았다.

지난 한해 사건들 중에 한토막입니다. 사랑은 식어져가고, 기쁨은 잃어버리고 불신은 점점 많아져 현실을 감당치 못하고 생을 포기하는 자가 많아지고 있는 슬픈이 시대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1. 서로 사랑하라 (요15: 12, 요13: 34)

사랑은 모든 것을 실립 수가 있습니다. 예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2. 항상 기뻐하라 (살전 5:16)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기쁨과 웃음은 행복과 건강을 가져오게 합니다.

3.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살전 5:17)

기도는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합니다.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기도는 세상을 정복하게 만듭니다.

4. 범사에 감사하라 (살전 5:18)

감사는 원망과 불평과 분노를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믿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5.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마 28: 19~20)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성령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하루 종일 일꾼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주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항상 기쁨 충만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쉬지 말고 기도하여 능력 충만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믿음이 성숙되며, 전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머니와 딸 세대가 함께 하는

제시뉴욕 · 레모네이드 춘천점



연예인과 함께하는
제시뉴욕

가죽·모피·예복전문

대표 전 순 천

☎ 252-7262

위치 조양동 조흥은행본점 앞

두란노 어머니학교 춘천 2기

어머니학교는 성경적인 여성상을 제시하여 이땅의 어머니들이 그 비스듬 안에서 돕는 배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자녀를 잘 양육하여 가정을 세우며 궁극적으로는 열국의 어머니로서 교회와 사회를 이롭게 세워 나가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격려하고자 합니다.

■ 일 시: 2006. 3. 9(목)~4. 6(목)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
■ 장 소: 순복음춘천교회 교육관 3층
■ 회 비: 10만원
■ 계좌번호: 농협 301036-56-035555 예금주: 민병임 (지원자 이름으로 입금)
■ 문 의: 민병임 018-325-1968, 안금자 010-7390-9192



급격히 변하고 있는 네팔땅, 그곳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기 위해

-25회 GBT 네팔 캠프 위클리프-

2006년 1월 10일 이상추위 폭설 아시아 강타 -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등.
2006년 1월 14일 네팔, 반군과 휴전기간 만료 후 최대교전 17명 사망.
2006년 1월 15일 네팔서 반군 공격 초정 연쇄 폭발로 20여명 사상.
2006년 1월 19일 네팔, 반정부시위 막기 위해 전화 및 인터넷선 끊겨.
2006년 1월 20일 네팔 수도 전역 계엄령 선포.
2006년 1월 22일 네팔, 대규모 반정부 시위, 50명 이상 부상.
2006년 1월 22일 네팔반군-정부군, 격렬 전부로 20명 사망, 반정부 활동가 수백명 체포.
2006년 1월 23일 네팔서, 정부군- 반군 총격전 26명 사망.
2006년 1월 24일 네팔, 민주화 시위 확산.
2006년 1월 24일 네팔 국정혼란 심화, 왕정 단속강화 나서.

이것은 우리가 네팔에서 체류하던 1월 4일과 27일 사이에 외신에서 보도한 뉴스의 헤드라인이다. 헤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점점 더 어려운 상황 속으로 가고 있는 현재 네팔의 정세는 외부인의 출입을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복음은 이들에게 더욱 절실한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연일 계속되는 비상계엄령, 정부군과 반군의 총격전은 네팔에서의 우리 계획과 일정을 모조리 뒤바꿀만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신변마저도 뒤바꿀만한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절대 변합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보호 아래 있었던 만큼 어지러운 네팔 정세가 무안할 정도로 너무나 평안한 일정을 보낼 수 있었다. 네팔에서의 3주간은 그야말로 은혜의 시간이었다.


해발2천미터의 둥티멍 마을 풍경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언어로

전세계에는 약 250여개 국가가 있다. 그리고 전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숫자는 약 7,000여 개에 해당된다. 이 7천여 개의 종족 언어중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언어로 단 한마디도 전해지지 못한 종족수가 무려 2,644개에 이른다. 이 2,644개 종족에는 그들 종족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줄 사역자가 단 1명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캠프위클리프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백한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성경번역선교 사역자 및 지원 업무 사역자를 발굴하기 위해 1934년 미국 아칸소에서 시작되었으며, 이것이 위클리프성경번역선교회(WBT)의 시작이다. 빌리 그래함 목사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평가하고, 탑프윈터 박사가 개신교 선교의 가장 위대한 3명의 선교사 중 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윌리암 카메룬 타운젠드에 의해 시작한 캠프위클리프는, 70년 넘게 매년 계속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한국 성경번역선교회(GBT)에 의해 1984년에 시작되었고 올해로 25회째를 맞는다.



3-4주간 진행되는 캠프는 언어학과 문화인류학, 성경번역원리, 선교사기본훈련 등 성경번역선교사가 되기 위한 기초훈련과정으로, 특히 이번 25회 캠프는 훈련내용을 선교현지에서 직접 활용하고, 성경번역이 진행되고 있는 선교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며, 훈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네팔에서 실시하였다.


힌두교 집승의 피제사 드린 칸리 사원

네팔에는 약120여개의 언어가 있고 이중 하나님 말씀이 번역된 언어는 약 20여개에 불과하며 이들 중 대부분도 신약 등 일부부만 번역된 경우이다.

네팔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내려다본 네팔 땅의 모습. 8,000미터가 넘는 산들이 즐비하여 세계의 지붕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네팔의 지형은 그렇게 높은 산만큼이나 골짜기도 깊다. 그 골짜기마다 모여 있는 마을들. 위에서 내려다보면 바로 옆 마을이지만 골짜기에 가로막혀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골짜기에 가로막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헛된 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신 것이다.

Come by here! 여서와주세요!

우리는 성경번역 선교현장으로 해발 2천 미터의 산지에 살고 있는 등티멍(보안상 실제종족이름과 차이가 있음)종족을 방문해 그곳에서 생활했다. 등티멍 종족은 복음이 이 땅에 온지 2천년이 지나도록 자신들의 언어로 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하고 있고 단 몇 개의 복음서만이 일부 번역된 상태이다. 종족의 90%이상이 라마불교를 믿고 있으며 생활 곳곳에 라마불교의 흔적이 깊숙이 배어있다. 해발 2천 미터의 산골짜기에 숨어있는 듯한 이 마을은 외부인의 발길이 거의 없다고 한다. 등티멍 사람들은 최소한의 전기시설만이 있을 뿐, 현대문명의 혜택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고유한 전통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마을에 가기 위해서는 사람 하나 겨우 다닐만한 비탈길을 쉼 없이 올라가야 한다. 바로 인근의 옆 마을에 가기 위해서도 가파른 길을 수도 없이 오르내려야 하는 그곳. 밥 해먹고 비탈길 몇 번 오르내리면 하루해가 저물어버리는 그곳. 그런 곳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일인가를 알지만, 그곳에서 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겸손히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그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곳곳에 힌두사원과 라마불교사원이 뒤섞여있는 강력한 힌두교와 라마불교의 나라 네팔. 아직까지 이곳에 많은 사역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성경번역, 교회개척, 신학교사역, 의료사역, 컴퓨터, 선교사자녀 교사(MK사역), 종족조사, 회계, 행정, 음악, 미술, 태권도, 여성지원, 상담, 자원봉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여기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길 원한다. 선교의 궁극적 대상은 바로 선교사 자신이다. 네팔의 모든 종족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비전을 꿈꾸며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다.

글. GBT 춘천지부 김대원 간사

※ 이번 일정 가운데 네팔 현지상황 및 성경번역 선교사역에 대한 내용은 보안문제로 자세히 지면에 싣지 못했습니다. 네팔 선교상황 및 성경번역 선교사역, 캠프위클리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은 GBT춘천지부(252-3967, aiya79@hanmail.net)로 연락바랍니다.

앤투어 ntours
● 할인 항공권 전문
● 전세계 호텔 예약
● 여권 및 비자 업무
● 국내 · 외 여행 일선 (수학 · 졸업 여행)
● 배낭여행 · 어학연수
● 전세 버스 일선
● 신혼여행
● 유로패스/JR패스 예약 및 발권
● 해외선교 후원
대표 김 지현 집사 (춘천동부 교회) (011-9057-3946)
TEL:244-7400 도청 밑에 위치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대표 권 승 갑 장로 (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순종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내일에 대한 확실한 보험

황우석 줄기세포, 혁신도시, 사학법, 양심적(?) 병역거부파문으로 이번 겨울은 땅 위의 소망하는 실체와 보이는 증서를 좇아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잊은 듯하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기를 바란다. 보장된 노후, 보장된 취업, 보장된 직장 등등. 누구도 막막한 미래나 불안정한 삶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위에 것들을 추구하고 애착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우린 나그네 삶으로 날마다 선한 전쟁을 치르며 산다. 즉, 모든 경건과 정직함과 함께 평온하고 화평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주님을 나타내고 진리의 삶을 살며 사람들을 지혜와 화평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람은 대부분 내일이 보장되지 못한 삶을 살았다.

아브라함은 장차 상속으로 받게 될 곳으로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떠났고, 이후에도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있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 이집트로 팔려갈 때 내일 일을 알지 못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의 라암셋을 출발할 때 내일 광야의 어느 곳에서 장막을 칠지 알지 못한 채 출발했다. **다윗**은 사울의 손을 피해 엔게디 광야와 블레셋 지방을 떠돌 때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채 유리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침략한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갈 때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채 끌려갔다.

그러면 이들이 '보장되지 않은 내일' 때문에 불행했을까?

사도바울은 당대 최고의 교육과 좋은 혈통과 사회적 기득권이 있었고 누구보다도 더 '안정된 생활'과 '보장된 내일'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후엔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 후 세 번의 몽둥이와 한 번의 돌로 맞고 세 번 파선을 당하고 여행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자기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지치고 괴로워하고 여러 번 밤을 세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어 매일의 삶이 담장 한 시간 후의 일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고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살았다. 그 속에서 바울은 살아있는 동안 셋째 하늘을 맛보았다. 우리의 생활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내 머리로 계산해 보았을 때 보장된 미래'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기초 위에 쌓은 집과 같은 것이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잠27:1) 주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장차 어떻게 될지를 불안해하면서 오늘을 살지 말라고 명령하신다.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지니 이는 내일이 자기 일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악은 그 날에 족하기 때문이니라."(마6:34)

성도들에게 있어서 '보장되지 않은 내일'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복이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내일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험이다.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떠나가면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 날에 그의 생각들이 사라지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시146:3~5)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다.

하늘과 땅이 입맞춤하니 땅 속에서 꿈틀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봄이다.

혼자 외딴 곳으로 나아가니 들리는 소리가 있다. 우리의 생활이 하늘에 있다.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것같이 해야 한다. 이 세상의 모양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주님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염려하자. 우리의 생활이 하늘에 있는 자들일 때 태동하는 성시의 움직임을 볼 것이다. 우리가 또한 하늘로부터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일 때 피어난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의 발에 입을 맞출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이 일을 위해 함께 이에 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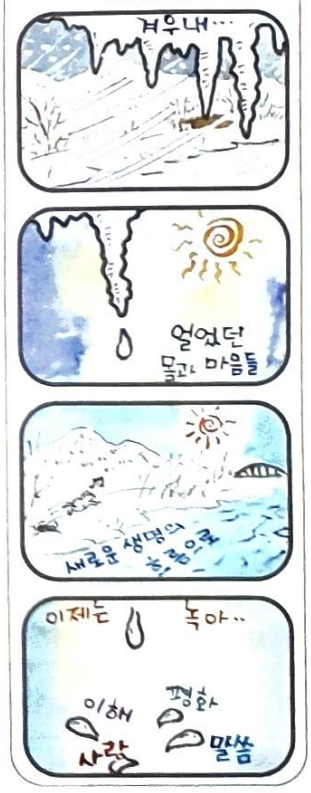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가 2:10~13)

[글, 편집부 이영규]



성시콤

〈김 춘 배〉



예 향

일어나자 크리스챤이여!

후쿠크 시리우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1903년, 4명의 공산주의자가 유물론을 비롯하여 공산혁명의연구를 시작하더니, 1917년에는 40,000명의 공산주의자가 생겨 소련을 공산주의 혁명으로 뒤집어엎었다. 그로부터 약 9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 약15억의 인구가 공산주의와 독재주의의 망령아래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00년 동안의 긴 세월에 기독교는 힘 하고 있었느냐고 지적하고 있다. 하나님은 2,00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들은 아직 절반의 인구도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기의 이데올로기를 전하던 공산주의가 이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즈음 그 빈자리에 수많은 사이비 종교 우상숭배 등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 미지게 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대유 본질이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 김준곤 목사

세경볼링센타

매주 토요일 오후2시~3시30분 무료강습



위치 춘천시 석사동 694 세경상가(지하)

대표 이 용 운 집사

(온누리장로교회 · 춘천시볼링협회 전무이사)

☎ 261-6184~5 / 011-9969-6702 cafe.daum.net/ccbowling

2006년 신입생 모집

www.Montessori.co.kr

성민대학교●부설한국선교신학교, 국제몬테쏘리선교신학교

신 학 과	2년제	고졸이상
몬테소리학과	1년제	
케어복지학과	1년제	
목 회 학 과	2년제	고졸이상
선 교 학 과	1년제	
요양관리학과	1년제	

▶▶ 선착순 모집 ◀◀

문/의/전/화 ……

☎0331)264-0451~3

016-286-0451

포·토·에·세·이

봄은 그물로 온다



지붕에 고여 있던 묵은 낙엽이 거나
간지러다 으린 아늘을 양해은들었던
대지의 얼굴은
봄의 속살거림에 넉나간듯 서있고
창문 덮은 비닐을 벗길 때
귀울의 골레는 따스한 햇살속으로
녹는듯 사라진다
시산 청상에 남은 시린 물고기들.
이끗여끗 해를 드러내며 하늘로 띄어들고
이 산 또안고 산 사이로
만고벤에 덮쳐오는 거역할수 없는
이 임찬 생명의 기운
나는 이토록 아름다운 으름속에
작은 풀잎이 되고
망각의 미물이 되고
봄 햇살에 무너지는 미립의 사물이 되고.
아.
봄은 그물로 온다

시 김홍주
(효자감리교회 권사, 민예총 춘천지부장, 성수고 교사, 시인. 시집으로 '시인의 바늘' 외 동시집 다수)

책 소 개

은혜가 내 안으로 들어오다



글. 춘천명안교회 고재만 목사
맥스 루카도 지음. 장경림 옮김. 규장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 진정한 출발을 하게 되며,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더욱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좋은 뜻으로 시작한 열심인데, 생활하다보면 은혜의 감격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규율과 규칙이며, 그것에 늘 미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실망하며 더 나아가 신앙생활의 정체 내지 깊은 퇴보를 경험하게 된다. 그 규율과 규칙은 경건한 신앙인은 이러해야 하고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스스로의 설정이다. 그래서 자기 의(義)에 빠지게 된다. 은혜로 시작한 신앙인데 은혜 안에 있지 못하고 자기 의에 사로잡히는 우리의 성향 때문에 실제 은혜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맥스 루카도는 이런 성도들의 삶을 다시 은혜 안에서 숨 쉬고 성장해 가도록 로마서를 우리에게 쉽게 소개하고 있다.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를 '신앙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 진정으로 가장 순수한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를 통해 마르틴 루터와 존 웨슬리, 존 칼빈, 윌리암 틴데일, 어거스틴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루카도가 책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저작 동기이다. 위대한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숨쉬기 전까지는 자신의 의로 인하여 이루지 못하는 신앙 때문에 갈등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 이는 또한 우리의 신앙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숨 쉴 수 있다면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맥스 루카도 목사는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가장 독특하고 상상력이 넘치는 우화로 풀어가는 필력이 더할 나위 없이 탁월하다"는 평이 오히려 부족한 미국 기독교계의 만능 집필가, 동화작가, 영성 넘치는 설교자이다. 은혜의 깊이가 있지만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이 있는 로마서인데, 그의 글 속에서는 손으로 잡힐 듯, 피부로 느낄 듯 현실감 있는 표현으로 은혜를 설명하고 있다. 그의 집필동기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숨 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다.

행 사 안 내

▣ 강원도아동학대예방센터 ▣

♣ 부모- "아동양육 방법 배우기"
1) AP T교육(적극적 부모역할 훈련, 강사: 모의희)
- 기간: 2006. 1월 18일(수) -2월 8일(수) 총 16시간
- 대상: 부모
- 인원: 12명
- 문의: 국번없이 1391

▣ 월드비전 ▣

♣ 무료진료
1. 일시: 2006년 2월 6일(월)
2. 장소: 월드비전 3층 강당
3. 인원: 50명
4. 주최: 강원도재활병원,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

♣ 아동방학교실 종강식
1. 일시: 2006년 2월 10일(금)
2. 장소: 복지관 3층 방과후교실
3. 참가인원: 70명

♣ 청소년 찬양집회
1. 일시: 2006년 2월 20일(월)
2. 장소: 미정
3. 참석예상인원: 40명

♣ 어린이합창단 겨울캠프
1. 일시: 2006년 2월 23일(목) ~ 24일(금)
2. 장소: 복지관 3층 강당
3. 참가인원: 60명

♣ 제13회 자원봉사자대회
1. 일시: 2006년 2월 28(월)
2. 장소: 복지관 3층 강당
3. 참가인원: 130명
4. 문의: (033) 254- 7244

▣ 해비타트 ▣

♣ 춘천지회 사무국 직원모집
1. 모집 인원 0 명
2. 업무 내용: 사무국을 이끌어 갈 국장 겸
3. 서류 마감: 2월 17일 까지
4. 제출 서류 및 면접 문의: 254- 0009 (이사장, 실행위원장)
5. 자격 · 해비타트 기본 정신을 알고, 기독교 정신으로 열정으로 일하실 분
·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명으로 알고 봉사하며 일하실 분
· 행정 사무 경력이 있는 자로서 컴퓨터 문서 편집 및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분
· 자동차 면허가 있고 기동력이 있는 분
· 년령 : 만 35세 이상 55세 미만
6. 제출 서류: 이력서 1통, 자기 소개서 1통, 추천서(가능한 담임 목사 추천서 1통 또는 본인을 잘 알고 신분을 보증하여 줄 사람)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사랑의 빛 월드비전 World Vision
강원지부
춘천종합사회복지관
www.gangwon.worldvision.or.kr
강원 춘천시 효자1동 373-90
· 현사랑1 만원 · 배사랑(2만원) · 늘사랑(3만원)
월드비전후원계좌 : 농 협 240-01-078120
☎ 254-7244 조 흥 515-01-088052
우체국 21002-01-001322
예금주 월드비전

입당예배 및 임직식을 은혜중에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시온교회
담임목사 오생락
2006년 표어 Vision2011, 그 특별한 여행을 위한 새로운 출발
교회 4대 비전: 1)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2) 복음전파에 앞장서는 교회
3)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는 교회
4)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예배시간 주일1부/오전 7:30, 2부/오전 9:00, 3부/오전 11:00, 오후예배/오후 2:00/ 수요예배/오후 7:30,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아동부/ 주일 오전 9:00/ 청소년부/토 오후 5:00, 청년부/ 토 오후 7:30
☎ 262-8534, 262-8537 춘천시 석사동 802-3번지 (하이마트 맞은편)

황성주 생식 춘천석사지점 오픈
하이마트 사거리 LG전자 2층
황성주 생식이 진정한 웰빙생활을 책임지겠습니다.


■복앙클럽가입안내
목회자, 선교사님을 위한 복앙클럽 회원이 되시면 -목회자 전용포장 1박스(생식 60포-2개월분)를 주문하시는 분께 2박스를 보내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황성주생식 석사점에서는 함께할 가족을 모집합니다.
033) 261-2002 / 019-350-5115
팩스 261-2333
대표 서지현 권사(시온성결교회)

♡ 교경협의회 신년하례회



춘천교경협의회는 1월 11일(수) 오전11시 동원감리교회에서 2006년 교회와 경찰가족들이 함께 하는 신년하례회를 열었다. 이날 회장 정상문목사는 정(正)에 대한 말씀을 통해 바른 사회 바른 시민 바른 경찰의 삶으로 2006년 교경의 모든 합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한다는 말씀을 전하였고, 전병랑 춘천경찰서장은 교회와 경찰이 연합하여 복지 사회를 구현하자는 말씀으로 감사를 표하였다.

♡ 예스컴 후원의 밤



춘천청소년선교단체 예스컴(대표 길선희 간사) "2006 후원자의 밤"이 1월 16일(월) 오후 7시 카페 크리스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한 해 동안 예스컴의 사역,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과 예스컴 파송 선교사들을 후원해준 후원자들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후원자들을 위한 예스컴 훼퍼들의 특별공연 등은 매우 눈길을 끌었으며, 2006년 사역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후원자의 밤>을 시작으로, 2006년에도 춘천지역 청소년 선교를 믿음으로 일궈나갈 예스컴에 더 많은 후원자들과 함께 영혼구원의 열매가 맺게 될 것을 기대해본다.

♡ 부산성시화운동본부 방문



부산성시화운동본부는 1월 27일(월) 부산수영로교회에서 열린 2006 연차총회에 포항과 춘천성시화운동본부를 초청하여 도시마다 일어나는 성시화운동에 대한 보고와 협의회를 가졌다. 이 모임을 통해 성시화운동의 연합과 향후 방향에 대한 공동관심사를 논의하고 교제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신년교례회



2006년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박상호목사) 신년교례회가 1월 4일(수) 오전 11시 삼천동 귀빈레스토랑에서 열렸다. 특별히 이번 교례회에는 기독교연합회와 함께 하는 모든 기독교 기관들의 소개 및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시화운동본부 · 교역자연합회 · 장로연합회 · 직장선교연합회 · 군선교 강원지회 · 각 신교단체 · 목회자축구선교회 등 춘천의 복음화를 위한 모든 기관들이 기도제목을 나누고 합심기도를 하는 등 희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2006년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며 값진 연합을 통해 성시화를 이루고자 결단과 교제의 시간으로 가졌다. 이날 회장 박상호목사는 전년도 기독교연합회장인 유진형목사와 총무 유호선목사 및 성시화운동본부 전 사무총장 조충환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 춘천을 위한 특별기도회



혁신도시로 인해 상처받은 시민들을 위한 특별속복기도회가 2006년 1월 1일 오후 1시 새해 첫날 도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춘천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 주관으로 열린 기도회에는 연합회장 박상호목사, 총무 박인관목사, 성시본부 조영춘목사와 김주환목사(순복음춘천) 김창수감독(신성) 권오서감독(중앙) 한균복사(평화) 이원호목사(소양) 피종호목사(나눔) 김현곤목사(새순) 손학균목사(석사) 등 교파를 초월한 지역목회자들과 허천국회의원과 류종수 춘천시장과 도,시의원들,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들과 함께 성도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기독교연합회장 박상호목사는 "혁신도시 문제로 인해 많은 갈등과 분열 속에서 새해를 맞게 되어 안타까우며 2006년은 갈등이 치유되는 위로와 축복의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영춘목사의 혁신도시 유치 관련 상황보고를 시작으로 '혼란에 빠진 나라와 민족, 대통령을 위해', '강원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춘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등 춘천과 강원도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 가폭 · 성폭 상담자 자격인증교육

춘천기독교연합회 후원으로 가정폭력 · 성폭력 상담사 자격인증교육이 지난 2005년 11월 28일부터 2006년 1월 26일까지 춘천제일장로교회에서 실시되어 총 46명이 상담사 자격증을 획득하였다. 앞으로 이들의 각 교회 및 선교단체에서의 활동을 기대해본다. 그리고 재교육 신청 요청이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춘천제일교회(박상호목사 시무)에서 매주 월,화,수,목 오후6시30분~10시30분까지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우리아이 지키기 강원대회



사학법 원천무효 및 우리아이 지키기 강원대회가 한나라당 주최로 1월 24일(화) 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박근혜대표를 비롯해 김진선지사와 이재오원내대표, 이방호정책위의장, 최연희사무총장, 이규택최고위원, 허천도당위원장 등 약 3,000여명이 참여하여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가졌다. 이날 성시화운동본부 조영춘사무총장은 기독교계를 대표하여 "사학관계자들은 사리사욕을 버리고 초심을 되찾아야 하고, 무리한 사학법 날치기 통과를 결행한 정부는 나라를 위해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연설했다. 특히 이날 집회 후 박근혜대표와 최연희사무총장, 허천도당위원장, 혁신도시유치위 비상회의 박민수대표, 범대위 수석상임대표 박상호목사(기독교연합회장), 오승룡, 조영춘목사 등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춘천과 강원도의 현실 문제에 대한 타개책을 제시하였고, 시민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당대표가 나서서 갈등국면에 있는 강원도내의 문제를 적극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연구해보겠다는 확답을 얻었다.

♡ 피학대아동 문화체험



강원도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는 KT춘천지사(지사장:정주상) 사랑의 봉사단과 함께 2006년 1월 20일(금) 피학대아동들을 위한 강촌리조트 눈썰매장행사를 열었다. 이날 참여한 12명의 피학대아동들은 눈썰매 등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가지며 따뜻한 온정을 느끼는 값진 감동의 시간을 가졌다.

♡ 위대한영성가들 출판기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원종국목사는 현대인을 위한 영성훈련지침서로 『위대한 영성가들』이라는 책을 kmc출판사를 통해 발간하게 되었고, 이를 위한 출판기념회가 1월 31일(화) 오전 11시 본교회 예배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상목감리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김한구목사(양구교회)의 기도, 박거종감독의 설교말씀, 그리고 2부 출판기념회에는 김기련학장(목원대학교)의 서평과 박상혁감독의 격려사와 권오서감독의 축사 그리고 원종국 목사의 인사말, 김창수감독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출판된 서적을 선물로 증정하였다.

인류평화의 비전을 키우고 인재를 양성하는 아가피아 스쿨

공교육이 무너져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사교육도 돈만 많이 들지 공교육과 마찬가지로 입시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가정교육은 이미 상실된 지 오래되었고, 교회도 교회교육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현실적 문제들을 방관한 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귀하고 이름다운 인적 물적 자원들을 주일학교(SUNDAY SCHOOL-영성교육)에만 국한시키겠습니까, 아니면 교회학교(CHURCH SCHOOL-전인교육)로 발전시키겠습니까?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육을 주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잘 훈련되고 실력을 갖춘 교사들만 준비되면 충분히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것을 가능케 하는 아주 효율하고 탁월한 시스템과 훈련 과정을 소개합니다.

아가피아(아가페+유토피아) 입니다.

아가피아의 학습법은 유대인의 성경적 자녀교육(쉐마)과 서구의 홈스쿨링, 그리고 한국의 서당교육의 장점을 살려 우리의 토양에 맞게 연구 개발된 세계에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21세기 꿈의 학습 시스템입니다.

13년간의 실험을 통해 그 놀라운 성과가 입증되었으며, 1년 안에 대부분의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배가될 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 4년 과정을 마친 사람들보다더 논문을 잘 쓰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서신의 대안학교인꿈의 학교는 아가피아 학습법의 산물입니다.

아가피아 학습은 영성, 지성, 체성, 감성, 관계성, 지도성, 전문성 등을 구성 요소를 기초로 인격과 비전, 그리고 실력을 갖춘 전인적 인재 개발과 지도자 양성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춘천에서 107, 108, 122기 등 총 122기에 걸쳐 교사를 양성하여 현재 전국에 78개의 독서스쿨과 꿈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인터넷으로 1,000명의 학생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교사양성과정을 마치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 부모님들은 학원이나 과외에 자녀들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 자녀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또래 그룹을 모아 독서당을 운영할 수도 있고 독서 및 논술지도 학원 운영도 가능합니다.
- 교회 내 방과 후 교실, 주말학교, 꿈의 학교(대안학교) 개설 운영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교회마다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학교(초, 중고등 과정)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 초, 중, 고등학교 방과후 교실 강사로 활동하는 등 고학력 실업자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탁월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 특히 선교사역에 대한 비전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선교지에서의 가장 어려운 문제인 자녀교육 문제를 스스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agapia 사단법인 아가피아 강원지부 - 드림교육 강원지부 (효자동312-1, 메드로선교센타 5층) ☎033-241-9939
지부장 김성호목사 011-372-9100 사무국장 이보경목사 010-3234-6636 간사 이은미 011-9058-3711

광 고

사 설



가면을 쓴 사람들…

박 상 호 목사
본보편집장 춘천제일장로교회 담임

창세기 38장에 황당한 이야기가 있다. 유다의 장자 엘의 아내 다말로 인한 사건은 우리 문화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자식이 없이 남편 엘이 죽자 당시 시행되던 계대 결혼을 시도했으나 유다의 아들들로 인해서는 자식을 얻지 못한 다말은 창녀의 가면을 쓰고 시아비지 유다에게로 접근을 한다. 그렇게 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다윗의 조상이 되게 했다.

마태 26:48-50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안녕 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아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라 하여 가룟 유다는 제자의 가면을 쓰고 그 이른 새벽에 그렇게 예수님이 집히게 하였으니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박형용 편저 『그래 그거야』라는 책속에 원숭이 가면을 쓴 청년이라는 글이 있다. 한 청년이 직장을 구하러 다니다가 동물원에 취직이 되었다. 그가 하는 역할은 원숭이의 탈을 쓰고 원숭이의 노릇을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 동물원의 원숭이가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원숭이를 구할 때까지 원숭이 노릇을 하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었다. 며칠간 훈련을 받고 원숭이 우리에 배치되었다. 원숭이 가죽을 입은 이 청년은 동물원을 찾아온 어린이들을 위해 진짜 원숭이처럼 재주를 부렸다. 줄도 타고 올타리를 타고 오르기도 하다가 그만 실수를 하여 바로 옆에 있는 호랑이 우리로 떨어지고 말았다. 깜짝 놀란 청년이 돌아다보니 호랑이가 이슬렁이슬렁 다가오고 있었다. 당황한 청년이 도망을 치면서 "사람 살려 사람 살려"하고 소리쳤다. 그때 가까이 온 호랑이가 "조용히 해 우리 둘 다 직장 잃게 생겼어"하지 않는가. 원숭이 청년은 그제야 안심을 했다.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다. 현실적으로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된다.

사람이 알맞게 자신을 꾸미면 처음에는 화장이 되나 도가 지나치면 회장에서 분장으로, 분장에서 변장으로 변장에서 가면으로 변하게 된다. 세상이 온통 변장과 가면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은 나도 변장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염려스럽다. 우리 신앙인들은 가면을 벗자! 그리고 진실하도록 노력하자! 그리고 진실함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이 거짓의 가면들을 벗겨주시도록 기도하자. 거짓된 가면의 사악한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 알려드려요

◆ 예스컴(구 예수사람운동)

1) '목동 모임'
일시: 2월 4일(토) 오후6:30 장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

2) '신도네시아 단기선교'
일시: 2월 6일(월)~11일(토)

3) '학교별 기독동아리 집회'
사대부고 로뎀집회 : 2월 18일(토) 성수고 성수여정 연합찬양집회 : 2월 4일(토) 6:30 남부제일감리교회

4) '예스컴 프레이즈'
일시: 2월 25일(토) 오후6:30 장소: 중앙성결교회 소예배실
문의: 244-5400/018-305-5171 [cafe.daum.net/holykids]

◆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신도 의료봉사 단기선교'
일시: 1월 28일(토)~2월 7일(화) 장소: 인도 캘카타
내용: 의료 봉사와 더불어 복음을 전함

2) 'C.C.C. 생활 훈련'
일시: 2월 6일(월)~17일(금) 장소: CCC 아카데미 하우스

3) 'C.C.C. 순장수련회'
일시: 2월 23일(목)~25일(토) 장소: 미정
문의: 254-5776

◆ 예수전도단

1) 춘천 회복을 위한 화요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6:30 장소: 춘천동부교회 소예배실
대상: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일정: 2월 7일 효과적은 전도세미나2
2월 21~28일 효과적인 성경공부1.2

2) 브르스길라(중보기도)모임
춘천과 예수전도단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2시~5시
장소: 춘천지부 사무실(한신아파트 맞은편)
대상: 가정주부(맘싱어는 자매님) 문의: 033-252-1128

3) 춘천 3기 IBETS(지장인목 수퍼제자훈련학교)
일시: 2006년 3월 23일-2006년 9월 초
원서접수: 2006년 1월, 2월 말
원서배부: 화요모임, 춘천지부 http://cafe.daum.net/CCBEDTS

◆ JDM

1) '중국단기선교훈련'
일시: 2월 1일(수)~15일(수)

2) 'IMTI(선교사훈련과정)'
일시: 2월 6일(월)~24일(금) 장소: IMTI

3) '개강 LTC'
일시: 2월 26일(일)~28일(화) 장소: 춘천지구회관
문의: 252-3192 / 011-9058-3192

◆ IVF

1) '학동학사 훈련캠프'
일시: 1월 31일(화)~2월 2일(목) 장소: 미정

2) '2차 임기자 훈련'
일시: 2월 1일(수)~11일(토) 장소: 속초

3) '신임간사 훈련 수료 예배'
일시: 2월 3일(금) 오후 2시 장소: 대전제일교회

4) '박의범 이사 중앙이사회장 취임식'
일시: 2월 18일(토) 장소: 동부장로교회
문의: 252-5200

◆ GBT

1) 위클리프스쿨 전국 리더교육
일시: 2월 20일(월)~22일(수) 2박3일간
장소: 대구 봉덕교회

2) 비전기도회
일시: 2월 27일(월) 저녁 7시 장소: 에덴교회
님씀: 김남수 이덕신 선교사 (파푸아뉴기니 와이미종족)
문의: GBT춘천지부 김대원 간사 011-367-6085

◆ 어린이 전도협회

1) 'TC 전도자 대학'
낮반: 2월 20일(월)~25일(토) 오전9:30~오후3시
저녁반: 2월 20일(월)~3월 3일(토) 월,화,목,금 오후6:30~10시
장소: 나눔성결교회 등록금: 12만원
마감: 2월 15일 낮반-선착순 20명, 저녁반-선착순 10명
문의: 253-1443, 242-8291 [http://cafe.daum.net/cefdv]

◆ 홀리클럽 조찬기도회

일시: 2월 3일(금) 오전 7시 장소: 평화감리교회
문의: 사무국장 김영명 장로 011-9792-5775

◆ (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강원도지회

일시: 2월 21일(화) 오전 7시 장소: 순복음춘천 교회
문의: 사무국장 김영명 장로 011-9792-5775

◆ 가정폭력 · 성폭력 상담사 교육

일시: 2월 22일 ~ 3월 31일 오후6:30~10:30
장소: 춘천제일장로교회 241-4361
등록금: 55만원(농협 307815-51-089758 윤장현 목사)
문의: 황병호 장로 010-6772-3377

◆ 춘천5기 아버지학교

일시: 2006. 2. 25 ~ 3. 25 매주 토요일 오후5시~10시30분
장소: 춘천 석사감리교회 261-6823
문의: 김승구 016-9347-0025, 이학규 017-370-4831

◆ 아가피아 드림교육

1) 아가피아 독서스쿨 교사(3급)과정 모집
일시: 2. 6(월) ~ 9(목) 오전9시 ~ 오후6시
장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 추수홀 (구 베드로정형외과)
등록비: 20만원(심화과정 포함)

2) 중 · 고등학생을 위한 독서, 논술, 효과적인 학습방법 강좌
일시: 2. 20(월) ~ 23(목) 오전9시 ~ 오후6시.
장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 추수홀 (구 베드로정형외과)
등록비: 20만원(간식과 점심식사 제공)

3) 아가피아 꿈의 학교 교사(2급) 과정(16주)
일시: 3월 초 개설
문의 및 연락처 : 241-9939, 011-9058-3711

< 성시신문 후원자를 찾습니다 >

후원계좌 : 농 협 203-02-280238 조남진
조 흥 716-01-001389 조남진
우체국 200022-02-129749 조남진
1구좌 5천원, 2구좌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성시화 후원자 명단]

강촌감리교회	나눔성결교회	남춘천감리교회
늘사랑교회	동신장로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니교회	사암중앙교회	소양성결교회
소양제일성결교회	사랑의침례교회	새순성결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사우동장로교회	서부감리교회
석사감리교회	온누리장로교회	예광침례교회
일신교회	주찬양교회	중앙장로교회
춘천동부장로교회	춘천성결교회	춘천중앙감리교회
평화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한빛장로교회
천일현수막	헤비타트춘천지회	의암기도원
엔투어	유림닭갈비	포인테리어
디티피아	농협선교회	김 준 언
김 길 홍	김 현 철	김 영 명
민 병 업	박 동 환	성 기 온
신 성 균	신 종 철	안 미 애
안 정 숙	엄 필 남	오 흥 수
이 국 정	이 용 규	이 원 기
이 관 호	이 학 규	유 근 창
장 기 영	정 천 복	조 은 제
최 경 용	최 상 호	최 치 광
한 희 현	황 병 천	허 순 영
홍 성 운	홍 순 복	

깨끗한 춘천, 거룩한 춘천을 위한 성시회원이 되어주세요!!!

《 춘천성시화회원 가입신청서 》

성 명	
주 소	
연락처	전화: 핸드폰:
E-mail	
교 회	(직 분)
교 단	

《 후원방법 》 ▶기도후원 ▶봉사후원 ▶재정후원

정기후원	20구좌 \100,000원
	10구좌 \ 50,000원
	2구좌 \ 10,000원
	1구좌 \ 5,000원
춘천성시신문	광고: 1면 전면광고 - 500,000원 부터
	그외 200,000원 \100,000원
	구독: 월 1,000원부터 그 이상
계좌번호	농협 203-02-280238 조남진
	조흥 716-01-001389 조남진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강원도 춘천시 효자1동 373-90 ☎ 033) 256-1260 ※매주 월요일 오전 7시 예광교회에서 성시기도모임이 있습니다.